

電機工業界의 技術開發을 위한 提言



新亞電氣工業(株)
會長 趙容驥

I

電氣는 國民生活의 質的向上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産業의 生産性向上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電機工業界가 고도경제 성장을 주도해 가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外國의 기술에 우리의 勞動力을 接合시킨 과정에 불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국제경쟁사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尖端技術開發만이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原動力이 된다는 점에서 電機工業界의 기술개발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I

국내 重電機工業은 그 역사가 日淺한 관계로 技術開發 水準이 先進國과 비교하여 약 10~20年정도 뒤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組立生産技術은 어느 정도 先進國 水準에 이르고 있으나, 源泉設計技術은 선진국의 것을 모방하는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小容量 電氣機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機器에 대한 기술 축적이 미약하고 업체의 開發能力 부족으로 인하여 제품개발은 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 및 모방 生産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내企業의 기술도입에 대한 판단 및 消化能力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技術導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술도입시 제공받는 기술내용이 基礎設計技術 및 源泉技術 도입 보다는 제조기술, 도면제공등 단순 기술도입에 의존하므로써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企業附設 연구소 설립의 부진과 현행 重電機器 검사제도의 문제점등 기술 개발을 위한 주변 여건이 미흡할 뿐더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投資실적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水準에 있다고 하겠습 니다.

III

以上の 問題點을 해결하고, 고도의 정보화 時代에서 요구되는 電氣의 高品質, 高信賴度를 보장하는 것은 첫째,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하에 基礎研究와 電氣이용기술, 업계기

술등에의 研究領域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産·學·研 협력체제를 조화있게 구축해 나가면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技術의 自立을 추진하여 관련 産業의 生産性 向上에 기여하며 차세대를 대비한 기술축적과 人材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항상 最新 技術을 습득할 수 있도록 産·學·研이 연계된 각종 워크숍,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학술교류, 정보교환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專門系列化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 重電機器 大企業은 종합 重電機器 제조업체로 育成하고 中堅企業 및 기타 中小企業은 生産品目的 專門性を 높게하여 專門生産體制를 확립하는 한편, 기타 部品업체에 대하여는 系列化체계 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電氣의 고도이용과 効에너지등 新時代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素材, 시스템의 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 할 것입니다. 즉, 과거의 運用技術 중심의 발상에서 탈피하여 각 방면과 협력하면서 스스로 研究開發을 리드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기술체질의 근본적인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되는 선진국의 技術保護主義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전개될 技術主權時代에 대비하여 기술축적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이라 생각하며 미래 첨단산업으로서 重電機分野 技術開發의 重要性은 더욱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